성균관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 SURE!

2024학년도 제1차 교학 정기회의 정리본

SURE! 나에게 든든한 첫마디

SURE!

성균관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

회의 일시	2024. 4. 18. (목) 15:00
회의 장소	600주년기념관 6층 세미나실1
참 여 자	(총학생회) 제56대 총학생회 SURE! 양 캠퍼스 부총학생회장, 학사정책국장, 학사정책국 차장 (학교 본부) 학생지원팀, 교무팀 행정 직원, 학부대학 행정 직원
논의 안건	URP 활성화, 마이크로디그리 활성화, 전공 정원 확대, 계절학기・도전학기 확대, 군복무학점 이수제 보완, 재수강 상한 학점 상향 조정, 기타

논의 안건 1. URP 활성화

총학생회: 현재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소속 학생들은 URP에 대해 높은 진입장벽을 느끼고 있어 자연과학캠퍼스에 비해 URP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임. 총학생회 주도의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지도교수 및 연구주제 리스트 배포와 공식적인 URP 팀원 구인 플랫폼에 대한 학생 수요를 확인했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 본부에 요청함.

- [URP 참여희망 지도교수/ 각 교수의 희망 및 특화 연구 주제/ 연락처]를 정리한 리스트(이하 URP 리스트) 제작 후 배포
- URP 홈페이지 제작 및 팀원 구인 공식 게시판 신설
- URP 제도 홍보 강화

학교 본부: URP 리스트를 통해 지도교수를 희망하는 교수 측에서 먼저 주제를 제시하여 URP를 진행하는 방식과 관련해 URP 취지 부합 여부의 고려가 필요하며 추후 대학원팀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이하는 대학원팀과의 서면 논의 내용임.)

학교 본부: 현 URP는 교수가 참여를 먼저 제안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교수에게 참여 의사를 사전에 밝힌 후 URP 참여를 결정하는 방식이기에 미리 교원의 참여 의사를 조사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지를 질의함. 교수의 URP 참여 의사 전수 조사는 가능하나,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히는 교수의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함.

오히려 URP 홍보 및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URP 참여 독려를 위하여 URP 모집 안내 시 우수 사례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팀원 모집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별도 창구를 만드는 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 다만, 많은 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총학생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함. 이와 관련하여 총학생회와 논의를 지속하고 적극 협조할 예정임.

논의 안건 2. 마이크로디그리 활성화

총학생회: 총학생회 주도의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마이크로디그리에 대한 학생들의 저조한 인지도를 확인하였음. 현재 마이크로디그리는 학생들의 실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며 비전공 T/O 배정 누락 등 시스템 운영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학교 본부에 요청함.

- 학생들의 실수요를 반영하고 대학원 수업을 포괄하는 마이크로디그리 신설
-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내실화
- 마이크로디그리 홈페이지 제작
- 마이크로디그리 제도 홍보 강화

학교 본부: 마이크로디그리 신설을 위해서는 교무처가 아닌 각 학문 단위에서의 논의가 선제되어야 가능하므로 학교 본부 차원에서 마이크로디그리 신설을 강제할 수 없음. 대학원 수업 확대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디그리를 운영하는 각 학문 단위의 판단이 선행적으로 필요함. 다만 신설하고자 하는 마이크로디그리 개설안에 대한 학생들의 실수요 자료를 전달해주신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재차 검토할 것임.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비전공 T/O 배정 이슈를 인지하고 있음. 다만 T/O 설정은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총학생회 측에서 전달 주신 의견 반영하여 논의할 예정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매학기 전체 마이크로디그리와 관련된 정보가 업로드되고 있으며 각 주관 학문 단위에서도 별도의 홈페이지 또는 공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마이크로디그리 홈페이지 제작의 경우, 일부 마이크로디그리 개별 플랫폼 운영 및 통합의 어려움, 별도 홈페이지 인지·접속 필요에 따른 실효성 등의 이유로 마이크로디그리를 위한 별도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다만, 해당 제도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총학생회의 제안에 따라 마이크로디그리 소개 자료 제작 및 SNS 홍보를 도입하였고, 이 외 다양한 홍보 경로를 검토하고 있음.

논의 안건 3. 전공 정원 확대

총학생회: 학생들의 부족한 전공 T/O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증원 신청 제도가 존재하지만 학생들의 체감 증원률은 미비하며 증원 신청 시 실제로 교강사의 증원 불가 사유를 전달받지 못한 학생들이 다수 존재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 본부에 요청함.

- T/O 통합 시기에 잔여 비전공생 T/O를 전공생 T/O로 전환

- 온라인(사전제작) 및 아이캠퍼스 중대형 강의의 최소 정원 상향 조정

- 책가방 활용 통한 전공 수업 정원의 탄력적 설정

- GLS 상 교강사의 1차 증원 신청 수신 여부 확인 기능 추가 및 중원에 대한 일관된 기준 안내

- 각 단과대 및 학부별 전공 수업 정원 협의회 병행 통한 전공 T/O 할당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공식 통로 마련

- 전공과목의 수업방식 및 강의실의 수용 인원에 따라 최소 전공 T/O를 설정

학교 본부: 학교 본부에서도 학생들의 부족한 수업 T/O에 대한 민원이 많음을 인지하고 있음. 다만 수업 T/O는 각 과목의 담당 교강사의 전적인 재량이기에 제도적으로 학교 본부에서 전공 T/O 증원을 강제할 수 없음. 매 학기 폐강되는 강좌의 수 또한 많으므로 전공 수업의 전체 T/O가 부족하기보다는 강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여 제기되는 문제일 수 있음.

T/O 통합시 잔여 비전공 T/O의 전공 T/O로의 전환의 경우, 교과목별로 비전공 T/O를 얼마나 할당할지에 대해 우선하여 논의가 진행된 이후 검토가 필요함. 다만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일방향 강의식 수업 및 아이캠퍼스 중대형 과목의 최소 정원 상향 조정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현재에도 증원 여부에 대해 교수님들께 긍정적인 검토와 빠른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고 있으며, 학과마다 정해진 강좌 총량의 최대치를 반영하여 수업 T/O를 할당하고 있음. 무분별하게 분반을 늘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학생 수요가 높은 교과목은 수업 전체T/O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임.

증원의 일관된 기준 안내의 경우, 학과별 특수성과 다양한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증원 기준을 일률적으로 설정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또한, 교강사의 1차

증원 신청 확인 여부 표기는 정보통신팀과의 확인이 필요함.

정원 T/O 설정의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강의실에 따른 기준 및 수업 방식 관련해서도 검토하겠음

논의 안건 4. 계절학기・도전학기 확대

총학생회: 계절학기 개설희망강좌 수요조사가 존재하나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음. 올해부터 계절학기 수업료가 인상됨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증액금만큼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났기에 이에 상응하여 개설강좌 증가를 통한 편익이 증대되어야 하며, 현재 타교에 비해 개설과목의 수가 현저히 적음. 특히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기점으로 다수의 기존 글로벌 영역 과목이 균형교양 영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계 계절학기에 글로벌 과목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함. 또한, 도전학기에 대한 학생 수요가 높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 본부에 요청함.

- 온라인(사전제작) 및 아이캠퍼스 중대형 강의, C/L 과목 확대를 통한 계절학기 수업 T/O 확대

- 필수교양 과목 중 “실천리더십/성균논어”, “글로벌” 영역 과목의 T/O 및 분반 확대

- 도전학기 혁신융합수업의 신규 전공 과목 개설 및 기존 개설 과목에 대한 전공 인정 가능 학과 확대

- 도전학기 혁신융합수업의 “DS교양” 영역 과목의 T/O 및 분반 확대

- 계절학기 및 도전학기 개설희망강좌 수요조사 홍보 강화

학교 본부: 계절학기 전공 수업 역시 마찬가지로 각 학문 단위에서의 결정이 우선되기에 학교 본부에서 개설 수업 확대를 강제할 수 없음. 다만, 각 학문 단위에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계절학기 수강 수요를 안내하여 정원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

온라인(사전제작) 수업 및 아이캠퍼스 중대형 강의 활용을 통한 공급 확대의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

현재 기존 글로벌 과목의 정원 감소로 인해 학생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글로벌 과목 확대를 노력할 것임.

계절학기 교양 교과목을 개설할 때 계절학기 수요조사 결과를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음. 총학생회 차원에서 계절학기 수요조사를 독려하면 도움이 될 것임.

논의 안건 5. 군복무학점 이수제 보완

총학생회: 본교의 학기당 군복무 수강 가능 학점은 3학점으로 타교에 비해 낮으며 현재 개설되는 군복무학점 강좌는 학생 실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 본부에 요청함.

- 학기당 군복무 이수 가능 학점을 6학점으로 상향 조정

- “성균논어” 수업 및 일반선택(P/F 과목) 영역 과목 추가 개설

학교 본부: 학교 또한 최대한 많은 군복무 학생이 이수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또한 본교의 군복무 이수 가능 최대 학점의 경우 다른 학교 대비 1과목 정도 차이가 있으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학기당 수강학점의 상향은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음.

현재 학부대학은 각 강좌의 담당 교강사에게 협조를 구하여 군복무 학생들의 수업 이수를 위한 정원 외 T/O를 추가로 설정하고 있음. 수업 정원은 담당 교강사의 전적인 재량이기에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을 수용하고자 노력 중임.

현재 군복무학점 이수제 개설 과목의 대다수가 균형교양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군복무 시기를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균형교양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임. ‘성균논어’ 과목은 실제로 작년에 개설되었던 사례가 있기에 과목 개설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함. ‘성균논어’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약 사항들을 고려하여 개설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음.

논의 안건 6. 재수강 상한 학점 상향 조정

총학생회: 총학생회 주도의 사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재수강 상한 학점 상향 조정에 찬성하였고, 높은 찬성률의 양 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가결을 통한 재수강 상한 학점 상향 조정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전달하고자 함. 본교 학생들의 대외적 학점 경쟁력 상승과 재수강 제도의 취지 실현을 위해 재수강 상한 학점 상향 조정을 요청함.

또한, 예상되는 우려점으로 제기된 초수강생과 재수강생의 불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시행방안으로는 재수강 상한 학점 상향 조정과 동시에 제도 활용의 제한요소를 추가하는 다음 세 가지 안을 학교 본부에 제시하고자 함.

- 1안: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모두 재수강 상한 학점을 A0로 상향하되, 재수강 가능 총 횟수에 제한

- 2안: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모두 재수강 상한 학점을 A0로 상향하되, 재수강 가능 횟수를 과목당 1회로 제한

- 3안: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모두 재수강 상한 학점을 A0로 상향하되, 동일 과목에 한해 삼수강 이상 시 최대 B+까지 취득 가능

추가적으로 절대평가 과목 수를 확대할 것을 요청함.

학교 본부: 재수강 상적 등급 상향 조정(안)에 대한 학생 사회의 의견을 확인함.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총학생회에서 제시한 2022년 졸업생 평점평균 뿐만 아니라 타 대학 상대평가 등급비율 등 성적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절대평가 교과목 확대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7% 대비 2024학년도 1학기 현재 약 50%의 수업이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플립러닝, PBL 등 절대평가 적용하는 수업방식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재수강 성적 상한 등급 상향 조정(안)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요청 시 지속적으로 소통 및 검토할 예정임.

논의 안건 7. 기타 - 마이크로디그리/URP 등 다양한 이수제도 전용 홈페이지 개설

총학생회: URP와 미이크로디그리의 체계적인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 및 플랫폼 개설을 요청함. 이를 통해 URP의 참여를 높이고 주관 부서가 다양하여 정보가 분산되고 있는 마이크로디그리의 정보 전달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학교 본부: 마이크로디그리의 경우, 개별 마이크로디그리의 주관 부서(학과) 및 운영 상황이 다르기에 별도 전용 홈페이지 개설-단일화하여 운영·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앞서 답변 드렸듯, 현재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는 공지들을 신설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업로드해도 홈페이지 홍보 및 활성화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성이 현행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또한, 본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이수제도 중 마이크로디그리와 URP만을 위한 홈페이지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마이크로디그리 홍보 및 참여 유도를 위하여 총학생회 소통창구를 통한 SNS 홍보 혹은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홍보 개선을 제안함.

URP의 경우, 해당 부분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학원팀에 전달하여 추후 논의를 지속하고자 함.